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홍현화^{1*}, 공정현², 강향숙³, 정현숙³, 양승경⁴

^{1*}경남대학교 간호학과, ²청암대학교 간호학과, ³문경대학교 간호학과

⁴경상대학교 간호대학

The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1*}Hyeon-Hwa Hong, ²Jeong-Hyeon Kong, ³Hyang-Suk Kang, ³Hyeon-Suk Jeong,

⁴Seung-Kyeong Yang

^{1*}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³Department of Nursing, MoonKyeong College

⁴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University

(Received March 20, 2014: Revised March 28, 2014: Accepted April 3, 2014)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ffect their clinical competenc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tructured-questionnaire survey with 143 nursing students to look into their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professional self-concept scored 2.85 on average out of 4 points, ego-resilience 3.61 on average, and clinical competence 3.48 on average. It was found that clinical competence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professional self-concept ($r=.58$, $p<.01$) and ego-resilience ($r=.44$, $p<.01$).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were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and academic grades in order, and explanatory power was 39.5%.

Conclusions. Given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al institutes need to find an educational plan which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and academic grade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y, Ego-Resilienc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 Corresponding Author : hongnaive@kyungnam.ac.kr

1. 서론

1.1. 필요성

임상수행능력은 안전하고 질적인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식 기반, 인지적, 정신 운동적 기술이다¹⁾. 이러한 임상수행능력은 최근 환자 간호의 복잡성과 난이도의 증가로 환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²⁾.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생은 간호교육을 수료한 후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간호교육의 최종결과물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확고한 간호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무 상황에서 간호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간호중재,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해야한다³⁾.

이러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들 수 있다⁴⁾.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⁵⁾ 전문 직업인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신적 시각으로 근무부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책 등의 조직적 요인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에 의해 발달되며 공식적인 학교교육 기관과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형성 된다⁶⁾. 간호직의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며, 낮은 간호사는 간호의 생산성인 임상수행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⁷⁾. 따라서 졸업하기 전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⁸⁾.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게하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다⁹⁾.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경험 시에 긍정적인 정서

의 활용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심리적 및 생리적 회복의 경향을 보여 준다¹⁰⁾.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임상수행능력을 가져온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교수효율성,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정체감⁴⁾⁸⁾¹¹⁾¹²⁾ 등 한 두 가지 개념과의 상관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임상수행능력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C시, J시, 전남 S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교과과정상 2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수행한 4학년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연구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 대학생 15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한 150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43명이 연구에 최종으로 참여하였고, 연구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에 의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에서 중간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로 하였을 경우 103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 측정도구

1)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은 Arthur(1990)⁷⁾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 PSCNI)를 Song 와 Noh(1996)¹³⁾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세 개의 하부영역, 즉 전문직 실무(지도력, 융통성, 기술), 만족감,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 와 Noh(1996)¹³⁾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⁹⁾이 개발한 자아-적응 유연성 척도를 Yoo 와 Shim(2002)¹⁴⁾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에서 5까지(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3) 임상수행능력

Lee 등(1990)¹⁵⁾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Choi(2005)¹¹⁾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의 영역인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교육/협력관계(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매우 못하다” 1점, “약간 못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 한다” 4점, “매우 잘 한다” 5점의 자가 보고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005)¹¹⁾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2.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남 C시, J시, 전남 S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 현재 시점에서 교과과정상 2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강의실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곧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하였다.

2.2.4. 자료 분석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글 SPSS 21.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점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 만 21.7세이었다. 학업성적은 '중'이 74.8%,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67.1%로 과반수이상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한다'가 59.4%이었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조금 좋은 편이다'가 44.1%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5점 만점을 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3

Variable	Divison	n	%	M±SD
Sex	Male	11	7.7	
	Female	132	92.3	
Age	20~21	75	52.4	21.71±1.10
	≥22	68	47.6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34	23.8	
	Average	96	67.1	
	Dissatisfaction	13	9.1	
Record	Good	22	15.4	
	Fair	107	74.8	
	Poor	14	9.8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88	61.5	
	Common	55	38.5	
Relationship with practice co-worker	Very satisfaction	117	81.8	
	Satisfaction	25	17.5	
	common	1	0.7	
Total		143	100.0	

준으로 평균 2.85점, 자아탄력성은 3.61점, 임상수행능력은 3.4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Variable	M±SD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2.85±.31
Ego-resilience	3.61±.52
Clinical Competence	3.48±.4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M=2.99)이 '불만족'(M=2.62) 보다 점수가 높았다(F=8.48, p<.01). 전공 만족도는 '만족'(M=2.93)이 '보통이하'(M=2.71) 보다 만족

Table 3.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y
			M±SD	M±SD	M±SD
Sex	Male	11	2.98±.36	3.99±.41	3.65±.52
	Female	132	2.84±.30	3.58±.52	3.46±.47
	t(p)		1.53(.129)	2.53*(.013)	1.30(.195)
Age	20~21	75	2.84±.29	3.50±.48	3.42±.45
	≥22	68	2.86±.32	3.73±.55	3.53±.50
	t(p)		-.36(.722)	-2.61**(.010)	-1.37(.173)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34	2.99a±.33	3.86a±.49	3.62±.43
	Average	96	2.83a±.29	3.54ab±.50	3.43±.46
	Dissatisfaction	13	2.62b±.22	3.48b±.60	3.44±.64
	F(p)		8.48**(.000)	5.33**(.006)	2.08(.129)
Record	Good	22	2.86±.30	3.55±.51	3.68a±.52
	Fair	107	2.86±.29	3.64±.50	3.46ab±.45
	Poor	14	2.75±.40	3.47±.70	3.27b±.53
	F(p)		.73(.484)	.80(.451)	3.59*(.030)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88	2.93±.31	3.70±.53	3.55±.43
	common	55	2.71±.25	3.46±.49	3.36±.52
	t(p)		4.43**(.000)	2.78**(.006)	2.40*(.018)
Relationship with practice co-worker	Very satisfaction	54	3.02a±.31	3.84a±.56	3.65a±.43
	Satisfaction	63	2.74b±.25	3.48b±.42	3.41ab±.47
	common	26	2.76b±.28	3.45b±.54	3.29b±.49
	F(p)		16.61**(.000)	9.12**(.000)	6.66**(.002)

*p<.05, **p<.01

도가 높았다(t=4.43, p<.01).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M=3.02)이 ‘좋은 편’(M=2.74)과 ‘보통이하’(M=2.76) 보다 점수가 높았다(F=16.61, p<.01).

자아탄력성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 연령, 학교생활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이었다. 성별은 남자(M=3.99)가 여자(M=3.58) 보다 점수가 높았다(t=2.53, p=.013). 연령은 ‘만22세 이상’(M=3.73)이 ‘만20~21세’(M=3.50) 보다 점수가 높았다(t=-2.61, p=.010).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M=3.86)이 ‘불만족’(M=3.48) 보다 점수가 높았다(F=5.33, p=.006).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 한다’(M=3.70)가 ‘보통이하’(M=3.46)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t=2.781, p=.006).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M=3.84)이 ‘좋은 편’(M=3.48)과 ‘보통이하’(M=3.45) 보다 점수가 높았다(F=9.12, p<.01).

전체 임상수행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업성적,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이었다. 학업성적은 ‘상’(M=3.68)이 ‘하’(M=3.27)보다 점수가 높았다(F=3.59, p=.030). 간호학전공 만족도는 ‘만족 한다’(M=3.55)가 ‘보통이하’(M=3.36)보다 만족도가 높았다(t=2.40, p=.018).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M=3.65)이 ‘보통이하’(M=3.29) 보다 점수가 높았다(F=6.66, p<.01).

3.4.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r=.58, p<.01), 자아탄력성(r=.44,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53, p<.01)(Table 4).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y

Variable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1		
Ego-resilience	.53**	1	
Clinical competency	.58**	.44**	1

**p<.01

3.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차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 성적’,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등 3개와 상관분석결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 2개 등 총 5

개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VIF는 모두 10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 통계량을 구한 결과 2.017로 2근방의 값은 나타나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464$)이었으며, ‘자아탄력성’($\beta=.194$), ‘학업성적’($\beta=.19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39.5%이었다($F=30.28, p<.01$)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Clinical competenc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2	F	P
Constant	1.13	0.33	-	3.37	.001	-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0.72	0.12	0.46	5.94	.000	0.34	30.28	.000
Record	0.18	0.06	0.19	2.79	.006	0.03		
Ego-resilience	0.18	0.07	0.19	2.49	.014	0.03		

Durbin-Watson=2.02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점 2.85점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ng (2012)¹⁶⁾의 연구에서 2.83점, Park와 Lee, Gu (2011)¹⁷⁾의 연구에서 2.82점으로 나온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Kim(2011)¹⁸⁾의 연구 3.0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Oh와 Lee, Seong (2013)¹⁹⁾

종합병원 일반 초보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2.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주로 1~3년차 사이의 기간에 형성이 되는데²⁰⁾ 초보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때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직접 실습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점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9)²¹⁾의 3.43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⁹⁾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역경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겪게 되는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발달,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3.48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와 Park(2013)²²⁾의 연구에서 평균 3.71점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비슷한 도구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013)²³⁾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2.8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과 높은 정적인 상관성을 가진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직접적인 간호제공보다는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간호 제공 실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규간호사로서 업무 수행 시 상대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간호학생들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는데, 이는 Park과 Lee, Gu(2011)¹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Lee와 Park(2013)²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학업성적 변수로 이

러한 요인들의 임상수행능력을 39.5%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과 Kwon(2013)⁸⁾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²⁴⁾. 그러므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학업성적을 높여주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성별, 연령, 학교생활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학업성적,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은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학업 성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학업성적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간호학생의 학교 및 학과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업성적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 등의 여러 가지 학업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변인 중 학업성적 증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 기본 간호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1. Gilje FL, Klose PME, Birger CJ. Critical clinical competencies in undergraduate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7;46:522-526.
2. Birkhoff SD, Donner C. Enhancing pediatric clinical competency with high-fidelity simulation.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010;41(9):418-423.
3. Lee EJ, Yi YJ, Kim YS, et al. Original Articles: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ed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2): 218-225.
4. Kang HO.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 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5. Arthur D, Thorne S.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strata of students of nursing in a Canadian universit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5;34(3):105-108.
6. Geiger JWK, Davit JS.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1998;19(12):50-58.
7.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1990.
8. Park YS, Kwon YH.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3;19(3):341-350.
9.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10. Tugade MM, Fredrickson B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4;86(2):320-333.
11. Choi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12. Koh KJ.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2003.
13. Song KA, Cho BH.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clin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26(1):94-106.
14.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02;16(4):189-2006.
15. Lee WH, Kim CJ, Yoo JS, et al.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Journal of Nursing Science*, 1990;13:17-29.

16. Seong MH.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18(1):18-24.
17. Park MS, Lee MH, Gu JA.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1;29(2):111-123.
18. Kim MS.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2): 159-167.
19. Oh EJ, Lee SY, Sung KM. Interpersonal relations, hop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4):491-500.
20. Arthur D.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2;17: 712-719.
21. Park WJ.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 240-250.
22. Lee EK, Park JA.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3;27(2):293-303.
23. Kim YS, Park KY.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4):536-543.
24. Barret C, Myric F.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Advanced Nursing*, 1998;27(2):105-108.